

사회

죽음부른 음주 항해

진도해상 꽃게잡이 어선 유조선과 충돌 4명 사망 3명 부상

갑판장 혈중 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운항

진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꽃게잡이 어선이 충돌해 어선 선원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및 피해상황=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진도군 임회면 장죽도 서쪽 2.2km 해상에서 1587t급 부산선적 모 해운 유조선 'C프린티어호' (선장 홍모·63·여수시 돌산읍)와 29t급 남해선적 꽃게잡이 어선 '5만천호' (선장 주모·59·경남 통영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만천호'의 선원 침실에 갑작스레 물이 들어 차면서 선원 정모(39·부산시 동구) 등 4명이 숨지고, 설모(54·경남 통영시)씨 등 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진도 모 병

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목포항에서 휘발유 1500㎏·경유 2300㎏를 하역한 뒤 여수항으로 가던 'C프린티어호'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름유출 사고도 없었다. 당시 '5만천호'는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 원인=사고는 '5만천호' 갑판장 최모(44·경남 거제시)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선장 주씨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이날 사고 해역은 시계(觀界)가 800m였고, 파고는 1m로 비교적 낮게 일었다.

해경은 최씨가 음주 운항을 하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동료 선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실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 투수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잇따른 음주운항 사고 왜? =올들어 목포해경이 적발한 음주 운항 건수는 모두 4건. 이 중 음주운항 사고는 3건이다. 지난해에는 20건(발생 기준)이었다.

목포해경 관할구역(목포·영광·진도·함평·무안·영암·해남·신안)은 전남·북 도계선 이남해역과 진도군에서 추자도를 연결, 남서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해역이다. 문제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별단속은 주로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포구에서 입·출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또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뚜렷한 목표 없이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선박을 골라 음주측정을 한다.

야간 음주운항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해경은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황장엽씨 살해 지령 남파 간첩 2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으로,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전안함 침몰사고도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당국에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하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36)씨와 동모

(36)씨를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아 같은해 12월 중국 엔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 탈북을 의심한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황씨의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1998년 나란히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2004년부터 인민무력부 산하 옛 정찰국 소속으로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인민군 소좌계급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주기로 한 광주시의회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대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월 100만원의 금품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희 묘 돈다발 주인 "존경 표현"

○국립서울현충원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지난 9일 발견된 현금 500만원의 주인을 찾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은 수원에 사는 이모(53)씨가 문제의 돈다발을 두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현충원 인근 은행에서 1만원권으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오후 1시30분께 작전 대통령 묘역 내 향로 곁에 두고 자리를 뒀다는 것.

○이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돈을 놓고 갔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1년 내에 이씨가 경찰서를 방문하면 500만원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 /연합뉴스

진도해상 추락 링스헬기 어디에?

수색 6일째 진척 없어... 애타는 실종자 3명 가족

해참총장 3함대 방문

지난 15일 밤 진도 동남쪽 14.5km 해상에서 순찰 중 추락한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스헬기에 대한 수색작업이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군과 해경은 추락 6일째인 20일에도 경비함 20여척과 헬기 5대를 투입해 고(故) 권태하(32) 대위의 시신이 발견된 진도군 조도면

동거도 동쪽 2.2km 해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작업을 벌였다.

또 해안선에서는 31사단 병력과 주민 등 300여명이 동원돼 헬기 파관 및 부유물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조종사인 권 대위와 함께 헬기에 탑승한 홍승우(25) 중위와 임호수(33)·노수연(31) 중사 등 실종자 3명의 가족

들은 더딘 수색작업에 예간장을 태우고 있다.

해군의 수색작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잦은 기상악화 속에 해저의 탁도가 심해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해역의 수심이 30~50m에 이르고 바다 밑이 빨썽으로 형성돼 시야확보가 어려워 잠수부들은 손으로 물체를 더듬으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0일 3함대를 방문해 수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실종자 가족과 권 대위의 유족들을 위로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오늘은 우리들 세상"

'제3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광주시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린 '희망행진 2010' 행사에서 장애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급공사 비리 연루... 전남 모 군수 수사

공사장 돈 뜯은 사이비기자 1명 구속 2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낸 모 환경신문 호남본부장 이모(44)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또 모 인터넷신문 기자 조모(44)·김모(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여수시 위생매점장에서 공사현장의 잘못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50만원과 주유상품권 등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

경찰이 전남지역의 모 군수에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전남 서부지역의 A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남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A군수가 관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남 A군수의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

다.

경찰에 따르면 A군수는 지역 내 경관조명 및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나 브로커 등과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과 함께 또다른 자치단체 1~2곳의 경관조명사업과 관련 해당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비리 사실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애인 상대 범행 숨기려

"성폭행 당했다" 황당신고

30대 무고 교사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0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들어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동거녀와 짜고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김모(34·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를 준사기·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하고, 공범 이모(여·28·경북 안동시)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역 앞 도로에서 전남 모 정신병원을 무단이탈한 지적장애 1급 신모(35·고흥군 두원면)씨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접근, 신씨의 명

7월 9일 공무원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합격이면 합격은 쉽고 할라집니다!**

- 2009년 입사, 전남 4개군(가서, 보성) 행정직 10명, 봉담에 100명, 70% 합격률
- 2009년 입사, 교육행정직 14명, 도립에 10명, 합계, 60% 합격률
- 2009년 입사, 전남 소방직 10명, 소방에 10명, 합계, 60% 합격률

개강)매월 1회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나일귀반**

경정직/소방직 전문 **국어: 송태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1**

서울고시학원 | 서울고시학원 | 서울고시학원

의사/약사가 되는길

MDPass 의학원!!! MDPass 약학원!!!

공부 최소, 합격률 최고, 100% 합격률, 100% 합격률

PEET/ MEET/ DEET

MDPass 의학원!!! MDPass 약학원!!!

특별초빙: 임명섭 교수 | 임만성 명예

입력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gsol.co.kr

MDPass

의학원

문의: 233-2433
mdpss.co.kr